

SM, 중국 재고부족 반등 가능성

Cash Flow 따라 SM 전매 늘어 ... SM Bid는 790달러까지 하락

미국의 벤젠(Benzene) 가격 조정 이후 폭락을 거듭했던 SM(Styrene Monomer)이 중국의 경기억제 정책으로 CFR China 780달러까지 하락했다.

SM은 3월말 BP의 미국 정유공장 트러블로 벤젠가격이 폭등하자 FOB Korea 톤당 965달러까지 폭등했으나 벤젠가격 조정과 SM 가격폭등에 따른 중국의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및 PS(Polystyrene) 구매거부가 이어져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급락했다.

또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수요기업들의 가동률 하락으로 중국 SM 내수가격이 하락해 4월30일에는 FOB Korea 815달러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SM 무역상은 “일본의 T/A(Turn Around) 마지막 시기에 달해 월 5500-7000톤의 Spot 공급물량이 6월까지 나오지 않고, 중국 화동지역의 SM 재고가 1만-1만5000톤에 불과해 3만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중국의 노동절 이후 구매량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노동절 이후 SM 시장의 가장 변수로 지목되는 것은 중국의 금리정책 변화로 파악된다.

SM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5월8일 중국의 경기억제 정책발표 이후부터 중국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운영이 다소 변경됐다”고 전했다.

중국이 기존에는 신용장의 한도액에 다다르면 한도액의 20-30%만 개설은행에 지급해도 신용장을 다시 개설 해주었으나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발언 이후 8일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한도액의 100%를 지급해도 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아 SM을 장기 구매해오던 사용자들이 자금회전성을 이유로 저가로 SM을 전매하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어 중국의 SM 가격이 추가로 폭락했다.

이에 따라 SM 가격은 Idea Deal의 Bid가 CFR China 780달러, 오피는 800-810달러이며, 7월 공급물량에 대한 Bid가 750달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SM 시장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성사됐던 SM 거래가 삼성물산과 Shell의 거래로 톤당 815달러이며, 8일 발표된 중국의 금리정책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SM 재고량은 Commercial Inventory와 Factory Inventory를 합해 4만-4만5000톤이며, 일본은 한해 7만7000-7만8000톤을 중국에 공급하는데 Spot 공급물량이 10%로 파악된다.

3-5월에는 극동아시아의 SM 플랜트 정기보수가 절정기를 이루고 있으며, 현대석유화학이 6월 No.2 크래커의 정기보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다소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5/10>